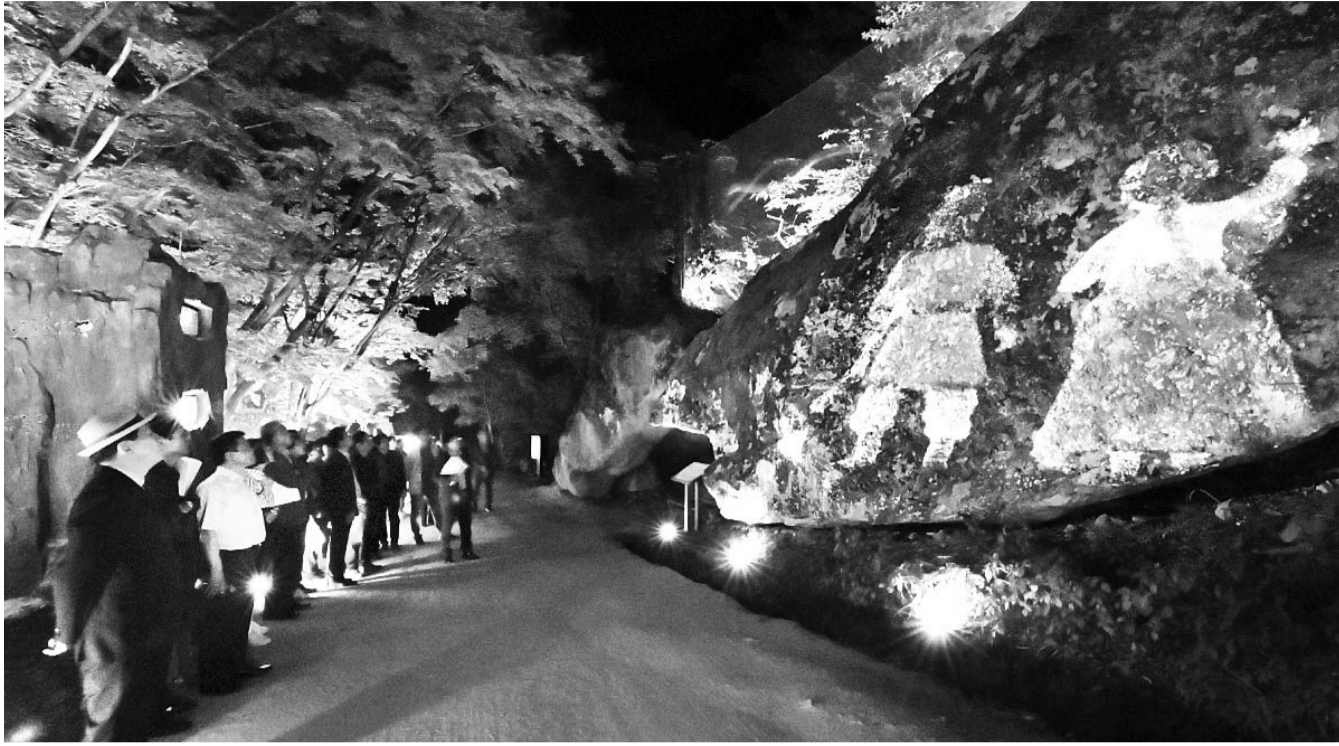


# 순창 강천산 '밤에도 빛난다'

군, 야간 명소화사업 완료  
천우폭포까지 1.3km 산책로  
빛과 스토리 영상 콘텐츠 구축



한문소설을 모티브로 만든 영상 콘텐츠인 '단월야행' 스토리가 강천산 산책로 암벽에 연출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 강천산은 밤에도 빛난다."  
순창군은 강천산 등산로 초입 산책로에 대한 '야간 명소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연간 100만여명이 찾는 단풍 명소인 이곳의 밤 볼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 2년간 단월야행 콘텐츠 사업을 벌였다.  
강천산 산책로 야간 명소화 사업은 2017년부터 총사업비 38억원을 들여 대표소에서 천우폭포까지 1.3km 구간 산책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빛과 스토리를 가미한 영상 콘텐츠를 구축했다.  
강천산은 연간 100만명이 찾는 유명산이지만, 방문객들이 주로 낮 시간 동안만 산행 등을 즐길 뿐 야간에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영상 콘텐츠 '단월야행'은 조선 중종 6년(1511년) 채수가 쓴 고전 한문소설 '설공찬전(薛公瓚傳)'을 모티브로 저승과 연관되는 염리대왕과 도깨비, 청룡 등 다양한 캐릭터를 창작해 남녀노소 누구나 친근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설공찬전은 유교를 근간으로 삼는 조선에서 귀신과 저승을 소재로 불교의 '윤회 화복설'을 다룬 소설로, 특히 이승에서 왕이었던데도 반역해서 집권한 왕이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천산 주요 관광지인 병풍폭포와 작은 폭포, 거라시바위, 천우폭포 등 총 4곳에

는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 영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대기영상을 암벽에 연출했다.  
특히 병풍폭포, 천우폭포 등 5곳에는 젊은 관광객의 체험·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증강현실(AR) 포토존, 인터랙티브 반응형 영상 등을 구축했다.

앞서 황숙주 순창군수와 순창군의회의원, 관광명소화사업 자문위원 등은 지난 5일 강천산 단월야행 등 영상 콘텐츠 시연회를 갖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야간 탐방에 따른 안전문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광양에 '해비치로'·'해오름육교'가 있다 이순신대교 관광테마거리·경관보도육교 명칭 확정

광양시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삼화섬과 마동체육공원을 연결하는 경관보도육교 명칭을 '광양 해비치로'와 '해오름육교'(<조감도>로 각각 확정했다.  
광양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전 시민선호도 조사결과 선정된 명칭 각 10개에 대해 상징성, 독창성, 전달성, 연관성 등을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 명칭으로 확정된 광양 해비치로는 해(태양)와 해(바다 해)+빛+이의 합성어로 '비치'는 beach(해변)를 의미한다. 365일 언제나 광양 온 누리에 해가 비치듯 와우공유수면 일대 해안선 9.4km 구간이 늘 빛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또 삼화섬과 마동체육공원을 잇는 경관육교의 새로운 이름 '해오름육교'는 해가 떠오르는 형상으로, 시 마스코트인

'미래소년-해아'와도 연관성을 높이며 광양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한다.  
이렇게 두 이름은 빛 광(光) 별 양(陽)이라는, 광양(光陽) 지명의 상징인 태양, 밝음, 희망, 미래, 발전 등의 의미를 모두 담았다.  
한편 이번 명칭 공모는 광양시가 민선 7기 핵심공약사업인 이순신대교해변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과 경관육교 준공을 앞두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브랜드를 통한 대국민 사전홍보를 위해 실시했다.  
공모 결과 테마거리와 경관육교에 각각 125건, 126건을 접수 받았고, 1차 심사에서 우수작을 각각 10개씩 선정된 후 2차로 시민선호도 조사와 내부 행정방향을 통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부쳤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 정읍사문화공원 내 대규모 도시 숲 조성

정읍시 시가지 정읍사문화공원 내에 대규모 도시 숲이 생겼다. <사진>  
정읍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시가지 정읍사문화공원 내에 4만7000여㎡의 도시 숲을 조성했다.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위해 시는 총 2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7년에 실시계획을 거쳐 5월 사업을 완료했다.  
이 숲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고 산림휴양에 우수한 편백나무 등 조경수 2185그루가 심어졌다.

시는 주민 여가생활을 위해 인근 아양산 등산로와 연계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녹색쉼터, 트리하우스, 흔들다리 등을 설치했다.  
또 어린이들의 전이적 성장과 숲의 친밀도 향상을 위해 체험 놀이터를 설치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시는 이번 도시 숲 조성으로 연간 약 789kg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저소득층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익산시가 생계·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준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면 된다.  
이 제도는 1개월 이상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와 병행해 조사하게 된다.  
/익산=유정명 기자 yjm@

조사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적합한 경우에 한해 전북형기초생활보장제도 적합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0만4840원)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복지부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 252만원)보다 완화해 적용하고(1인 가구 273만원, 가구당 재산 3억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고창군,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14개 읍·면에 무상 임대

고창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무상임대 사업을 전개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무상임대 사업은 멧돼지와 너구리,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포획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달 마을이장단을 통해 사용법 시연과 안전교육을 마쳤다.  
포획틀은 모두 28개로 14개 읍·면에 2개씩 배정됐다.  
포획틀은 무료로 대여되며 이용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장성군, 목이버섯 신품종 '현유' 실증재배 성공

장성군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목이버섯 신품종 '현유'의 실증 재배에 성공했다. <사진>  
목이버섯은 햇볕에 말릴 경우 '에르고스테롤' 성분이 몸에 이로운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타민D' 성분 함량이 약 30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태양의 선물'로 불릴 만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장성군은 농가 소득증대와 품목 다변화를 위한 '목이버섯 재배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목이버섯은 중국산 배지를 수

입해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건조 버섯을 수입해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하지만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국내산 배지를 사용한 국내 육성품종인 '현유'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머지않아 순수 국산 품종의 목이버섯이 시장에 대량 공급될 전망이다.  
국산 품종 '현유'는 중국산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20% 이상 많은데다 봄·가을 연 2회 재배할 수 있고, 생육기간도 10일 정도 단축할 수 있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